

저수온 위기경보 '주의' 단계 발령

- 서·남해 연안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

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(금) 15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* '주의'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.

*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 : 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 1단계 → 심각 2단계

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(내만 포함)에 저수온 예비주의보*를 발표(12. 31. 14시)함에 따른 조치이다.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~9℃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,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.

* (예비주의보) 수온 7℃ 도달 → (주의보) 수온 4℃ 도달 → (경보) 수온 4℃ 3일 이상 지속

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, 겨울철 어장관리 요령 등을 지도·점검하고 있다. 또한,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관찰한 수온 정보*를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.

*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'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(www.nifs.go.kr/risa) 및 '수온정보서비스' 애플리케이션

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“이번 겨울은 북극권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수온이 하강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하며, “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대응에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어촌양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 한 (051-773-5392)
			사무관	전영호 (051-773-5616)

참고 1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

